



보도시점

2023. 9. 10.(일) 11:00  
9. 11.(월) 조간

배포

2023. 9. 8.(금) 16:00

# 청년층 대상 농촌 임대주택 지원 확대

- ‘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’ 사업의 2024년 예산 올해 대비 3배 이상 증대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정황근, 이하 농식품부)는 ‘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’ 사업의 2024년 정부 예산안이 올해(48억원)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52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밝혔다.

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\*로서, 농촌지역 청년들의 주거·보육 부담완화 등을 위해 보육 등 편의시설을 갖춘 단독주택형 임대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. 현재까지 총 9개소가 선정되었으며, 이 중 2019년도 시범 4개소는 총 123세대 입주를 완료하였다.

\* 국정과제 목표(선정 개소수) : ('23년) 9개소 → ('24) 17 → ('25) 25 → ('26) 35

지자체의 수요가 많고, 입주민의 만족도\*가 높으며,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이 고려되어 2024년 정부 예산안이 대폭 증액되었으며, 2024년 8개 신규지구 및 총사업비 단가(80억원→90억원) 상승 등도 반영되었다.

\* 입주민 설문조사('22.12월) 결과,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사업이 입주민의 귀농·귀촌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(4.24점/ 5점)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

농식품부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“앞으로도 귀농·귀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동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농촌정책국	책임자	과 장	하경희 (044-201-1551)
	농촌계획과	담당자	사무관	이인애 (044-201-1558)

